

영광군 코로나로 끊긴 'e-모빌리티' 해외시장 개척 재개

강종만 군수 5일간 태국 방문 업무협약·세일즈 활동 투자청·협회·기업 방문 합작·수출계획 긍정적 논의

강종만 영광군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끊긴 지역 전략산업 'e-모빌리티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e-모빌리티는 초소형 4륜 전기자동차와 전기 이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간편 이동 수단이다. 매년 이용자들이 크게 늘면서 국내외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강종만 군수는 e-모빌리티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5일간 태국을 방문했다.

태국 시장 개척 활동은 동남아시아 수위의 경제대국인면서 전세계 자동차 생산 10위, 상용차 생산 4위의 생산력과 e-모빌리티 제품 수출 시 이를 소화할 만한 거대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 군수는 방문 첫날인 지난달 29일 태국 투자청을 방문해 나잇 텃스티라사디 청장과 4시간 동안 면담을 하고 합작사업과 수출 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나잇 투자청장은 영광군이 오는 10월 개최하는 '2023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방문 요청에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강 군수는 방문 둘째 날인 8월30일 오전에는 방콕에서 개최된 태국 iEVTech(전기차 박람회) 개막식에 내빈(VIP) 자격으로 참석해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후에는 영광군과 태국전기차협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영광에 소재한 기업과 태국전기차협회 소속 기업들이 수출을 위한 합작 등을 추진 시 비즈니스 미팅·전시회·공동프로젝트 등

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1일에는 태국 최대 국영기업인 PTT와 1위 기업인 CP 그룹 기업관계자를 면담했다.

강 군수는 PTT, CP그룹과의 면담에서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초소형 전기차를 소개하면서 이를 활용한 물류 유통을 제안해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e-모빌리티가 방콕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최고의 운송수단임을 강조하고, 국제엑스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에 양대 그룹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이번 태국 방문은 코로나19로 끊어진 국제교류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e-모빌리티 해외수출을 위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로 나아가겠다"면서 "관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수출을 위해 영광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지역 전략산업 'e-모빌리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태국을 방문한 강종만(왼쪽 두번째) 영광군수가 태국 iEVTech(전기차 박람회) 개막식에서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현대삼호중공업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금상 수상

R&D·현장개선 혁신사례 인정받아

HD현대 계열사인 현대삼호중공업(대표이사 사장 신현대)이 '산업계 전국제전'이라 불리는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출전팀이 모두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제49회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 출전한 2개 팀이 모두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순천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품질혁신으로 대한민국 미래 100년 선도'를 주제로 진행됐다. 앞서 사·도별 지역예선을 통과한 전국 273개 팀 2500여 명의 분임원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달 31일 선체설계부 'DENOVATION' 품질분임조가 R&D 분야에서 '화물창 구조 최적화 VLCC 개발'을 주



현대삼호중공업 분임조 'DENOVATION' (왼쪽)과 '가은누리'. (현대삼호중공업 제공)

제로 발표해 금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자동화혁신센터의 '가은누리' 품질분임조가 현장개선 분야에서 'LNG 멤브레인 시트 용접방법 개선으로 작업시간 단축'을 주제로 발표해 역시 금상을 받았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수상한 분임조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국내 연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대회 분임조 발표 내용은 국가품질상 홈페이지를 통해 전 산업 현장에 공유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중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산자부 주관 국내 최대 규모 품질 진흥 정부포상 행사인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항상 최상의 품질을 추구하며 현장에서의 실속 있는 개선 사례 발굴에 열과 성을 다한 임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품질 개발과 현장 개선을 통해 전국에서 인정받는 제조 혁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영광=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50억원 달성

개장 22개월만에 20만명 이용 참여농가도 530곳으로 증가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22개월 만에 매출 50억원을 달성했다.

2021년 10월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월평균 2억2700여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내 50억원 매출을 돌파했다.

개장 이후 20여만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이용했으며 200여 농가로 시작한 출하 농가 수도 530여 농가로 증가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연간 기획 생산을 통해 농

산물을 비롯한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품, 공예품 등 668개 품목을 출하하고 있다. 인근에 배후도시가 없는 여건에도 직매장 순환 이유는 소농가의 판로확보를 통한 소득향상과 소비자 안전먹거리 공급을 통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장에는 매일 오전 당일 생산된 신선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출하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을 농가소득으로 직접 지급해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득증대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물김 생산 활성화 김 양식 기자재 지원

무안군이 물김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김 양식 기자재를 지원했다.

김 양식 시기(9월-이듬해 4월)가 오면서 무안군은 지역 어촌계 김 양식 어가에 김 활성화 처리제 278t과 김 양식용 그물망 1만1588개를 지원했다.

이들 기자재를 지원받은 어촌계는 해제면 도리포 어촌계 등 13곳이다.

유기산이 주성분인 김 황성 처리제는 양식장 안에서 잡데 등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병해를 방제한다.

김 양식용 그물망은 김 포자를 부착하고 성장에

필요한 김발 역할을 한다.

무안군은 최근 2년간 물김 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물김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했다.

나재철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전남해양수산과학원과 협업해 김 채묘 시기를 예보하고 해양정보 제공, 어장 예찰 등을 하며 물김 생산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상 수온 등으로 인한 김 양식장의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경로당 어르신들과 한가위 정 나눔 송편빚기

목포여성리더스클럽 잔치국수 점심도 대접

목포여성리더스클럽이 추석을 앞두고 6일 동명여자경로당 어르신과 함께 '정 나눔 송편빚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를 위해 떡 반죽과 찜기 등 송편 빚기에 필요한 재료를 여순임 회장을 비롯한 회원 15명이 준비했으며, 경로당 어르신 35명 등 총 50여명이 경로당에 모여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면서 송편을 빚었다.

어르신들은 "다정하게 담소를 나누며 송편을 빚고 썰서 함께 나눠먹으니 옛날 대가족 시절의 명절 같다"며 즐거움을 표했다.

또 목포여성리더스클럽은 점심으로 잔치국수를 직접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함께 빚고 썰 송편과 두유 바나나를 개별포장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제공했다.

여순임 회장은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수고스러움은 전혀 없이 기쁨과 행복만이 남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목포여성리더스클럽이 6일 동명여자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송편을 빚고 있다.

있는 복지사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채 동명동장은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준 여순임 회장을 비롯한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소외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동명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목포문화관, 디지털아트문화관으로 새단장

체험형 융복합 콘텐츠 갖춰

14일 문학박람회 개막일 개장

목포문화관이 체험형 융복합 실감 콘텐츠로 새롭게 단장했다.

목포문화관은 문학박람회 시작일인 오는 14일 디지털아트문화관으로 문을 연다.

한국문학의 거장인 김유진·박화성·차범석·김현 등 4인 작가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목포문화관 내 5개 공간을 3D 영상, 스마트 문학체험존, 문학 미디어아트 플랫폼 등으로 꾸몄다.

실감콘텐츠는 터치스크린, 인터랙티브, 프로젝션 맵핑, 2D/3D 애니메이션 기술 접목으로 누벨

바그(La Nouvelle Vague) 즉 '새로운 물결'이란 콘셉트로 태어났다.

문학관 중앙홀은 각 관의 작가들에게 맞는 색깔을 덧입혀 '4인 4색'의 작가 세계를 소개하는 영상이 흘러나온다. 차범석관에서는 대표작 '산불'의 무대인 대나무 숲 공간을 고품질 영상으로 구현했고, 그의 작품을 모아 디지털로 전환한 미디어 아카이브를 감상할 수 있다.

박화성관은 한국 최초로 장면 소설을 쓴 여성 작가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대표작 '백화'를 프로젝트 맵핑(미디어 아트)을 통해 소개한다.

김현관은 평론을 문학으로 격상시킨 작가의 삶을 '바다의 몸'이라는 매지미러(거울을 활용한 실감 미디어)를 통해 영화적 기법의 다채로운 영상

으로 새로이 구현했다.

스마트 문학체험관은 목포의 문학을 소개하는 '블라썸 목포' (목포, 문학으로 다시 꽃피우다)와 체험형 공간인 '환상문학도서관'으로 구성된다.

블라썸 목포는 목포를 환상적인 실감 영상으로 담았고, 환상문학도서관은 관람객들이 직접 터치로 통해 목포의 문학을 엿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체험 공간이다.

박흥률 목포시장은 "전국 유일 문학을 주제로 한 목포문학박람회 개최에 맞춰 목포문화관이 디지털아트문화관으로 새롭게 선보인다"며 "문학에 실감콘텐츠를 더해 더 쉽고 재미있는 곳으로 재창조했다"고 말했다.

목포문학박람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북교동 일대와 문학관일원에서 청년신진작가 주제관, 웹툰존, 독립서점존, 아동문학존이 마련돼 국내외 유명작가 북토크, 공연, 체험행사 등이 열린다.

/목포=박영희 기자 ky@kwangju.co.kr

영암 버스터미널, 주민 문화공연장 깜짝 변신

상상뮤지컬터미널 프로젝트

공연·벼룩시장·체험행사 열여

영암군 시외버스터미널이 문화공연장으로 깜짝 변신했다.

영암군은 문화장작소 동행이 최근 영암군시의 버스터미널에서 '상상뮤지컬터미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영암군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이번 프로젝트는 시외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공연 행사로 마련됐다.

이용객이 줄어 '위기의 터미널'로 불리는 지역

의 작은 버스정류장을 주민참여로 '기회의 터미널'로 바꾼다는 취지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신대 실용음악과, 동아보건대 미술학과, 영암군청소년수련관의 가요·미술·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펼쳐졌다. 터미널 안팎에서는 벼룩시장과 일자리 카페 등 각종 체험 부스가 열려 버스 이용객과 공연 관람객에게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도 제공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에 문화를 입혀 새롭게 활용하는 첫 시도에 많은 영암군민이 성원해줬다"며 "주민참여와 지역 시설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좋은 방법을 찾아 군민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



영암군 시외버스터미널에 마련된 '상상뮤지컬터미널 프로젝트' 공연장에서 지역 음악가들이 무대를 펼치고 있다. (영암군 제공)